4부 구체적인 지침

죄 죽이기 9편 이 정도는 괜찮겠지? · 죄의 죄책과 위험과 해악을 바로 보기

4부 10장(131~143쪽)

> ❓ **이 정도 죄는 다들 짓는 거 아냐?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봐야 해?**

🧭 흐름 한눈에

오웬의 두 번째 구체적 지침은 이것이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죄책과 위험과 해악을 지성과 양심으로 분명히 알고, 늘 마음에 두라. 죄는 먼저 “이건 작은 일이야”라고 속여 눈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오웬은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죄가 왜 더 무거운지 보여 주며 죄책을 바로 세운다. 이어서 앞으로 닥칠 위험 넷(마음이 굳음, 큰 징계, 평안과 힘의 상실, 영원한 멸망)과 지금 이미 생기고 있는 해악 셋(성령 근심, 그리스도께 상처, 무익한 삶)을 차례로 보여 준다. 특히 멸망의 경고는 신분과 행실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신자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말이 아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말이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죄의 첫 속임수: "이건 작은 일이야" (10장)

오웬은 지침을 밝히자마자 그 지침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한다. 마음속에서 힘을 쥔

것이 그런 마음이다. 욕망은 생각을 어지럽히고, 약속을 흐리게 하고, “그래도 자비가 있겠지” 하는 기대로 지성(깨닫는 능력)을 어둡게 한다. 잠언의 젊은이는 생명을 잃을 줄 몰랐다. 그래서 어리석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비유로 핑계를 막으시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죄 죽이기의 첫걸음은 그 죄의 죄책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1. 지침 2: 죄책·위험·해악을 늘 기억하라
2. 죄의 첫 속임수는 “작은 일이야”
3. 남과 비교해 내 죄를 줄여 본다
4. 욕망은 깨닫는 능력을 어둡게 한다
5. 다윗도 나단이 오기 전엔 못 봤다

> **열왕기하 5:18**
> “이건 봐주시겠지” 하고 죄를 미리 작게 만드는 마음
>
>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 **호세아 4:11**
> 음행과 술이 마음, 곧 깨닫는 능력을 빼앗는다
>
>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 **잠언 7:7**
> 유혹을 따라간 젊은이는 명철이 없는 자
>
>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 **잠언 7:23**
> 생명을 잃을 줄 몰랐다는 것이 그의 어리석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7:11

에브라임은 지혜가 없어 자기 비참을 깨닫지 못함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사무엘하 12:1-7

(오웬이 장절 없이 언급) 나단의 비유가 다윗의 핑계를 막음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

📜 2.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죄가 더 무거운 이유 (10장)

오웬은 죄책을 바로 보게 하려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은혜는 신자 안에서 죄의 권세를 약하게 한다. 그래서 죄가 불신자를 지배하듯 신자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남아 있는 죄의 죄책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더 커진다. 로마서 6:2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에서 무게는 '우리'에 실린다. 오웬은 신자의 행위

것을 악인의 공공연한 죄보다 더 큰 악으로 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겉 고백을 제쳐 두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실제 모습을 짚으신다.

1. 은혜는 죄의 힘은 꺾고 죄책은 키운다
2. 행위가 더 흉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거슬러서
3. 강조점은 은혜 받은 '우리'에 있다
4. 하나님은 성도 안의 욕망을 더 큰 악으로 보심
5. 고백보다 실제 행위를 보신다

> **로마서 6:1-2 ★**
> 은혜 받은 '우리'가 죄에 머무는 것은 모순이다

> **요한계시록 3:15**
> 그리스도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보신다
>
>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 3. 위험 ①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굳어진다 (10장)

첫째 위험은 완고함, 곧 마음이 고집스럽게 굳어 버리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고 한다. 오웬은 그 과정을 실감나게 그린다. 전에는 말씀에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떨렸다. 이제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건너뛰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죄가 별것 아니게 보이니 그냥 넘기고, 그사이 죄는 자란다.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죄를 가볍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도 함께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1. 죄에는 마음을 굳히는 속임수가 있다
2. 말씀에 녹던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

5. 처방: 날마다 서로 권면받는 자리

> **히브리서 3:12-13**
> 죄의 유혹이 마음을 굳히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
>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4. 위험 ② 이 세상에서 받는 큰 징계 (10장)

둘째 위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자녀를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회초리로 치실 수 있다.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저지른 일에는 보응하신다. 다윗은 용서받은 뒤에도 광야로 도망쳐야 했다. 그런데 오웬은 곧바로 오해를 막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지을 때마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치실 때 양심이 "내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증언하면 영혼이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 그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이라고 덧붙인다.

1. 버리시진 않지만 회초리로 치신다
2. 용서하셔도 행한 일엔 보응하신다
3. 다윗의 환난이 그 본보기다
4. 죄마다 재앙이 온다는 뜻은 결코 아님
5. 전혀 두렵지 않다면 이미 굳은 마음

> **사무엘하 15:14**
> (오웬이 장절 없이 언급) 죄 이후 광야로 도망친 다윗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시편 32:4

(참고 구절)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징계의 무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 5. 위험 ③ 평안과 영적인 힘을 잃는다 (10장)

셋째 위험은 평안과 힘을 잃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오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힘은 은혜 언약이 약속하는 핵심이다. 영혼의 생명은 이 둘에 달려 있다. 죽이지 않은 욕망은 이 둘을 빼앗는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탐심의 죄 때문에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가리시면 평안이 없고, 치시면 힘이 없다. 그러니 전에는 연약함 때문에 울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마저 없다면, 이 위험이 머리 위에 걸려 있는 것이다. 오웬은 내일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을 최소한의 힘과 기쁨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신자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고 말한다.

1. 평안과 힘은 은혜 언약의 핵심 약속
2. 품은 욕망은 둘 다 빼앗는다
3. 얼굴을 가리시면 평안이 사라진다
4. 기도할 최소한의 힘마저 잃을 수 있다
5. 그래도 신자를 완전히 멸하진 않으신다

이사야 57:17

탐심의 죄로 하나님이 치시고 얼굴을 가리심

호세아 5:15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물러가시면 평안이 사라진다

>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시편 51:8

(참고 구절) 꺾인 뼈, 오웬이 장절 없이 말한 다윗의 탄식

>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 6. 위험 ④ 영원한 멸망: 신분과 행실을 나누어 읽기 (10장)

넷째 위험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 대목은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오웬은 먼저 원리를 말한다. 죄 안에 계속 머무는 것과 멸망은 서로 묶여 있다. 하나님은 죄 안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건지지 않으신다. 또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붙들 수 없다. 로마서 8:1의 “정죄함이 없다”는 참되지만, 그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오웬은 아니라고 답한다. 영적 신분과 삶의 행실을 나누어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행실이다. 계속 악을 행한다고 그리스도 안의 몫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증거를 붙들 수 없게 된다. 오웬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아니다. 이 길의 끝이 멸망임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1. 죄에 머물기를 고집하면 건짐이 없다
2. 욕망에 붙잡히면 구원의 증거가 흐려진다
3. 신분 판단과 행실 판단은 다르다
4. 신자의 몫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5.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10:38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8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8:1 ★

정죄 없음의 위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것

"신자는 자신의 영적 신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 7. 해악 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10장)

위험이 앞으로 닥칠 일이라면, 해악은 지금 이미 생기고 있는 손해다. 첫째 해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한 뒤, 그 큰 이유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오웬은 친구 비유를 든다. 다정한 친구가 마땅히 다정해야 할 친구의 냉담함에 마음 아파하듯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분은 내 마음을 처소로 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없애려는 원수를 그 집에 들여 함께 살게 한다. 오웬은

1. 해악은 지금 이미 벌어지는 손해
2. 성령은 내 마음을 처소로 삼으신 분
3. 그분의 원수를 품으면 근심하신다
4.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묵상
5. 깨끗이 지켜진 마음은 성령의 기쁨

에베소서 4:25-29

버려야 할 죄들의 목록, 30절 동기의 배경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30 ★

인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편의 큰 동기

예레미야애가 3:33

하나님은 본심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민수기 25:6

울고 있는 회중 앞에서 지은 시므리의 죄, 지켜보시는 분 앞의 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 8. 해악 ②③ 그리스도께 상처, 열매 없는 삶 — 지침의 정리 (10장)

둘째 해악은 품은 죄가 그리스도께 새 상처를 낸다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다치고, 그분의 사랑은 좌절되며, 원수는 의기양양해진다. 그리스도를 아주 버리는 것이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면, 그분이 멸하러 오신 죄를 품고 사는 것은 그분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다. 셋째 해악은 그 세대에서 그 사람의 쓸모를 빼앗는 것이다. 애써 수고해도 복이 따르지 않고 열매가 떨어진다. 오웬은 욕망을 순종의 뿌리와 은혜의 수단을 날마다 갉아먹는 벌레에 비유한다. 그리고 지침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것들을 생생히 마음에 두고 영혼이 떨릴 때까지 묵상하라. 이 떨림은 자기를 벌주는 고행이 아니다. 굳어 가던 마음이 죄를 다시 제 무게로 느끼는 것이고, 돌아설 힘이 거기서 생긴다.

1. 품은 죄는 그리스도께 새 상처를 낸다
2. 새로운 피조물이 다치고 원수가 웃는다
3. 욕망은 순종의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
4. 수고해도 열매가 떨어진다
5. 결론: 떨릴 때까지 묵상하라

> **히브리서 6:6**
> (오웬이 빌려 쓴 표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 품은 죄도 상처를 낸다
>
>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이 정도는 작은 일이야, 다들 하잖아” 하고 남과 비교해 넘긴다	은혜 받은 '내'가 짓는 죄라서 더 무겁다는 죄책을 바로 본다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어차피 용서받으니 징계도 평안도 상관없어”	징계와 평안·힘의 상실이 실제 위험임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안다
멸망 경고를 “난 구원 못 받았구나” 하는 자책과 절망으로 읽는다	신분과 행실을 나누고, 그 길의 끝을 보며 길에서 돌아선다
“누가 다치는 것도 아닌데” 하고 혼자만의 일로 여긴다	지금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리스도가 상처 입으신다는 관계의 아픔을 본다

착각의 뿌리는 하나다. 죄를 '나 혼자의 작은 일'로 보는 것이다. 오웬은 그 죄를 은혜,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다시 놓고 무게를 재게 한다.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이다.

정욕(욕망)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죄로 끌어당기는 비뚤어진 갈망이다.

죄책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과 허물이다.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증언하는 마음의 법정이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머물러 함께 사시는 것이다.

죄에 속아 마음이 굳어서 말씀에도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다.

징계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면서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서 내리시는 회초리다.

은혜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겠다고 은혜로 맺으신 약속이다.

인치심

성령께서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는 것이다.

영적 신분과 행실

신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행실은 지금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두 번째 지침은 그 죄의 죄책·위험·해악을 분명히 알고 늘 마음에 두는 것이다.
- 죄는 “작은 일”이라고 속이지만, 은혜 받은 신자의 죄는 그 은혜 때문에 더 무겁다.
- 품은 죄는 마음을 굳히고, 징계를 부르고, 평안과 힘을 빼앗는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이것은 신분이 아니라 행실에 대한 경고다.
- 지금 이미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리스도가 상처 입으시고, 내 삶의 열매가 갉아먹히고 있다.
- 이 떨림은 자책이 아니라 돌아섬을 위한 것이다. 시리즈가 끝에서 보여 주듯 죄를 죽이는 힘은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10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2)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